

유럽 교과서에 기술된 '서울'

'Seoul' Described in European School Textbooks

정재윤

한국학중앙연구원

Jae-Yun Jeong(jjy@aks.ac.kr)

요약

이 논문은 유럽 교과서에 기술된 '서울'을 분석하여 오늘날 서울이 유럽 교과서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 주요국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교과서에 기술된 '서울'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지 서술경향을 살펴본다. 유럽 교과서에서 서울은 거대도시 중의 하나로 도시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며 경제중심지로서 다른 대도시들 간의 상호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로 소개된다. 이와 함께 서울은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이 보유한 역사 및 문화 자원에 대해서는 주목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살펴본 유럽 교과서 중 서울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극히 드물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교과서 서술에서 한국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서술이 증대되어 교과서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기를 기대한다.

■ 중심어 : | 유럽 교과서 | 서울 | 거대도시 | 한국 이미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European textbooks reflect Seoul nowadays. The study focuses on the trend of textbooks in main European countries, such as England, France, Spain, Italy, and Germany. They tend to describe Seoul as one of the mega cities with urban problems, and introduces the city as an economic center which is responsible for interaction with other mega cities. Besides, Seoul is also described as less competitive city compared to others, and its history and cultural resources are not paid attention. Despite everything, it is fortunate that there are very few errors in descriptions of Seoul. In future I expect that descriptions of Seoul in European textbooks are enhanced in not only economic aspects of Seoul but also historic and cultural aspects of Seoul and then European textbooks get more reliable contents to inform Korea.

■ keyword : | European School Textbooks | Seoul | Images of Seoul | Mega City |

I. 서론

오늘날 서울은 2011년 기준 인구 10,026,000명이 거주

하는 세계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22]. 서울이 외국에 알려진 가장 공식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였다. 과거에 한국의 이미지는 자연환경과 전

접수번호 : #130117-001

접수일자 : 2013년 01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3년 02월 18일

교신저자 : 정재윤, e-mail : jjy@aks.ac.kr

통을 중심으로 강조되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개발과 도시의 이미지가 병치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 올림픽 이후, 서울의 이미지는 ‘숨겨진 동양’의 이미지와 함께 고층 건물과 도시 환경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도심 빌딩 숲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통 건축과 궁궐의 모습이 서울의 이미지에 더해지면서, 서울은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전이되기 시작하였다[5].

그렇다면 오늘날 서울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외국의 여러 시선 중 유럽 지역 교과서에 서술된 서울의 모습을 통하여 교과서에서 서울은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을 소개하거나 한국을 묘사한 여러 책자와 미디어 그리고 담론들 중에서 교과서를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과서는 사회적 산물로서[34], 학생들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 사항들에 대해 정부, 출판관계자, 학교위원회, 행정전문가들에 의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된 사회적 진술이라 할 수 있다[21]. 오늘날 교과서에 대한 정의 및 활용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교과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한 제도를 마련한 국가도 있으며 교과서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와 같은 교육현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든, 교과서 검정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든, 국가별 교과서 제도와 환경이 다를지라도 많은 국가들은 교과서가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교과과정을 반영하여 제작된다.

최근 서책형 교과서를 비롯하여 가상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각국마다 교과서를 규정하는 개념도 상이하고 교과서 집필, 제작, 선정, 배포, 개정 등 교과서와 관련된 일련의 제도와 환경 또한 동일하지 않으나 교과서는 해당 사회에서 인정받는 공식자료라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유럽 교과서에 소개된 서울 관련 서술은 오늘날 서울

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된다. 유럽 교과서에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며 표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서울의 이미지, 그리고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관련 선행연구

표 1. 관련 선행연구 요약

분야	연구자(연도)	국가별 구분	서술법 주요특성
역사인식연구	기계형(2011)	러시아	한국전쟁 인식
	박소영(2011)	일본	한일강제병합추진
	안지영(2011)	한국, 중국, 대만	일본침략 및 강점기
	오만석, 신호숙(2006)	러시아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 분단과 정부수립, 한국전쟁과 그 이후
	정재윤(2011)	영국	일제식민지, 한국전쟁
	정재윤(2012)	한국, 터키	양국 교과서 서술을 통한 상호 인식 비교
	한운석(2006)	독일	서술 문제점 및 개선방안
	J.Ahn(2009)	중국	한국전쟁 인식
	J.Jeong(2009)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폴란드, 체코,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한국전쟁 서술 비교
	S.Park(2009)	일본	한국전쟁 인식
W.Chang(2009)	미국	한국전쟁, 한국현대사	
W.Lee(2009)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구소련 붕괴후 한국전쟁 인식	
국가이미지연구	강선주, 최상훈(2005)	미국	한국문화와 역사, 한국전쟁, 민주화와 경제발전
	손용택(2009)	전세계 국가	국가이미지개선을 위한 교과서 연구의 성찰과 전망
	안지영, 박소영, 정재윤(2012)	전세계 국가	교과서 서술을 통한 국가이미지 모색 및 전망
교과체계/내용조직	구난희(2012)	아일랜드, 미국, 홍콩, 이탈리아,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베트남, 인도, 독일, 영국, 중국	외국교과서의 교과체계와 내용조직
	손용택(2002)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태국	교수-학습내용조직

지금까지 외국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에 대한 연구는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 역사인식 등 역사인식연구 [3][8][11][13][19][20][23][32][35][41-43]를 비롯하여 교과서 서술을 통한 국가이미지 연구[1][10][12] 및 교과

체계와 내용조직을 주목한 연구[2][9]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연구들은 국가별, 서술 경향별 특성 등 교과서 분석에 대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타자(他者)의 시각에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외국 교과서에 서술된 서울의 모습을 분석한 논문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이 글이 기여하는 바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글 또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과거 도시는 한 국가에 소속되어 국가의 관리 하에 발전해 왔으나, 오늘날 글로벌화와 탈영토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생활의 기반이 국가가 아닌 도시로 변화되었으며[6], 도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긴밀하게 연동된다[44]. 교과서에서도 세계사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 교과서에서 특정 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거나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유럽의 주요 5개국-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의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 중 서울과 관련된 서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래 분석 대상국을 전체 유럽 국가로 설정하였으나 국가별로 내용 편차가 커서 서로 비교를 하거나 공통점을 추출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한 국가에서 출판된 교과서일지라도 교과서마다 서울이 소개되는 양상은 상이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된 유럽 교과서 중 '서울' 관련 서술이 있는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국가별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영국>

- A. Palmer, Edexcel (A) Advanced Geography, Phillip Allan, 2005.
- D. Waugh, The New Wider World, Nelson Thornes, 2003.
- G. Nagle et al, AS&A Lavel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P. Guinness et al, IGCSE Geography, Hodder Education, 2009.

<프랑스>

- A. Ciattoni, Géographie, Hatier, 2004.
- C. Bouvet et al, Histoire-Géographie, Hachette, 2003.
- G. Bourel et al, Histoire-Géographie, Hatier, 2007.

<독일>

- Klett-Perthes, Haack Weltatlas-Atlas mit CD-Rom, Klett-Perthes, 2007.

<이탈리아>

- A. Ardemagni, Planet 2000, Principato, 2005.
- M. Dinucci et al, Geografia del ventunesimo secolo, Zanichelli, 2010.
- S. Bianchi et al, Passaporto per il mondo-Geografia del turismo, DeAgostini, 2006.

<스페인>

- J. A. G. Ruiz et al, Ciencias sociales, geografía e historia ESO 3, Edelvives, 2007.
- J. S. Sánchez et al, Ciencias Sociales: Geografía 3, SM, 2005.

III. 유럽 교과서에 서술된 서울 관련 내용

유럽 교과서 중 서울이 가장 빈번하게 소개되는 교과서는 역사, 지리 중심의 사회과 교과서이다. 각각의 교과서마다 한국이 소개되는 위치와 내용은 서로 동일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인문지리 또는 현대 세계 부분 중 전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저 발전을 설명할 때 서울이 나타난다.

유럽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서울 관련 내용은 크게 [표 2]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서울은 세계적인 거대도시 중 하나라는 점, 둘째 경제적으로 발전한 중심지이며 대도시들과 교류하고 있는 주요 지점이며, 셋째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도시의 문제점이 서

술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문화자원과 관광을 언급하였다.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유럽 교과서에서 서울은 교과서 본문 내용으로 서술되기보다 지도, 사진, 표 등 시각 자료 형태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서울’ 자체를 주목하여 서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각 자료를 통하여 세계적인 대도시들과 비교하는 서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표 2. 유럽 교과서에 소개된 ‘서울’ 관련 내용 요약

	거대도시	경제중심지 및 도시간 상호교류	대도시의 문제점	문화자원 및 관광
프랑스	-세계의 거대도시 & 인구밀집 -도시 인구 분포	-대도시간 교류 -특급호텔, 공항, 올림픽 및 세계박람회	-주택문제 -사진	-
영국	-높은 인구밀도	-행정, 교육, 정치중심지 -세계도시들의 전지구적 서열	-서울의 문제점	-
이탈리아	-높은 인구밀도	-세계 대도시의 경제관계, 글로벌 도시	-	-서울 사진 -서울의 문화자원과 관광
스페인	-세계의 거대도시 & 인구밀집	-남한, 서울의 비즈니스 중심구역 사진	-	-
독일	-높은 인구밀도	-세계경제의 중심지, 국제도시의 연결망과 영향력권	-	-

표 3. 유럽 교과서에 소개된 ‘서울’ 관련 형태별 자료량

	서술 (쪽)	지도 (개수)	사진 (개수)	표 (개수)	기타 (개수)
프랑스	0.5	9	0	3	-
영국	1	1	4	2	2
이탈리아	-	6	1	3	-
스페인	1	2	-	1	-
독일	-	6	-	-	-

IV. 유럽 교과서에 서술된 서울 관련 내용 분석

1. 거대도시

이번에 살펴본 유럽 교과서에서 서울은 ‘거대도시’ 중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서울은 대도시화가 진행되어 높은 인구밀도를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주요 도

사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기술된다.

프랑스 교과서에서 서울은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28][그림1],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 인구를 표로 정리하여 동아시아의 도시권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서울을 제시하였다[26]. 독일 교과서 또한 한국의 주요 도시로 서울을 꼽고 있으며 높은 인구 밀도를 특징적으로 기술하였다. 서울은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도시로 서울의 도시인구 비율, 도시 및 인구밀집지역 그리고 인구변화를 제시하였다[37]. 영국 교과서에서는 인구 천만 이상의 도시를 거대도시로 규정하여 전세계의 거대도시들을 분류하고 있으며[29], 거대도시에서 삶의 질을 주목하여 인구, 학생비율, 상수도 및 전기 시설, 러시아워의 교통 흐름 등의 통계수치를 수록하였다[31]. 이탈리아 교과서 또한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들을 주목함과 동시에 서울의 높은 인구밀도를 강조하고 있으며[25], 스페인 교과서 또한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의 인구증가율을 묘사하면서 서울을 포함시켰다[36][그림 2].



그림 1. C. Bouvet, 2003: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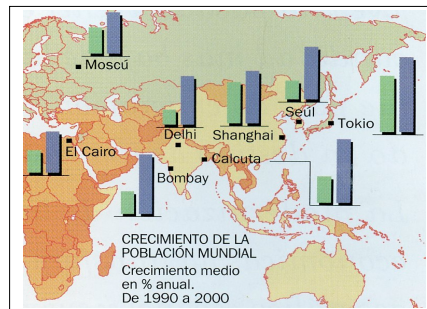


그림 2. J. S. Sánchez, 2005: 121

인류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도시 지역에 사는 전세계 인구의 비율이 2008년을 기점으로 시골 지역에 사는 인구의 수를 넘어섰다. 세계 인구는 2011년 10월을 기점으로 70억 명을 넘어섰으며, 그 중 52.1%인 약 36억 3,000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구 천만 이상의 거대도시 또는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5억 명에 이른다[4].

대도시권 특히 인구 1,000만 이상의 거대도시권은 인구나 경제력 측면에서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4]. 전지구화 및 도시화로의 전환은 국가 단위로 지역을 이해함과 동시에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구조로 변화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한국에 속해 있는 도시 중 하나이나 유럽 교과서에서 서울은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 서울된다. 서울은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며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를 넘어서 세계적인 지역성을 띠는 공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경제 중심지 및 도시간 상호교류

서울은 타이페이와 싱가포르와 함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신흥공업국의 대표적인 도시로 인식되기도 한다. 영국 교과서에서 서울은 산업화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행정, 교육 및 정치 중심지로 최근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기술하였다[27]. 독일 교과서는 서울을 세계적인 국제 도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으며, 여러 학자들이 규정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개념과 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적 영향력을 거대권역과 하위권역으로 나누어 세계 경제의 중심지와 하위 도시와의 교류와 연결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37].

스페인 교과서에는 서울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없으나 서울의 도심 사진을 수록하여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33][그림 3]. 이탈리아 교과서에서는 경제적인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대도시들이 경제 관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본과 제품 그리고 정보가 순환한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세계 40개의 도시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도시들은

'글로벌' 도시로 정의하였다[38]. 프랑스 교과서에서는 도시간 연결된 네트워크를 표시한 지도에서 서울은 도쿄와 오사카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아시아에서의 대도시간 교류 상황을 보여준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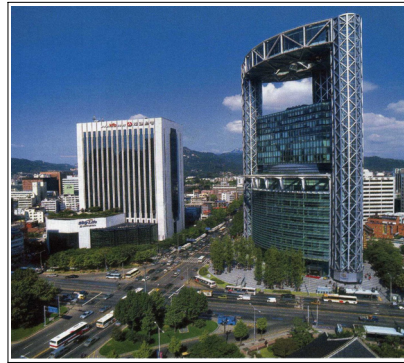


그림 3. J. A. G. Ruiz, 2007: 103

이탈리아와 프랑스 교과서 모두 서울이 주변국의 도시들과 주요 교류를 하는 거점 지역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주요 도시들을 서열화 했을 때 유럽 교과서에서 서울은 아직까지 영향력 있는 도시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허재완(2009)은 세계 주요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검토한 2006년 OECD Territorial Reviews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OECD 보고서에서는 세계 주요 대도시권을 국가성장 거점지역으로서의 기여도와 삶의 질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크게 'World Star급 대도시권', 'National Star급 대도시권' 그리고 '전환기의 대도시권',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OECD는 서울대도시권을 국가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미흡하며 삶의 질도 낮은 대도시권으로 평가하였다. 즉 OECD는 서울대도시권을 베를린, 맨체스터, 몬트리올 등과 함께 중심지로서의 기여도 및 절대적 경쟁력이 낮은 전환기의 도시로 분류한 것이다. 반면, 뉴욕대도시권, 런던대도시권, 파리대도시권 및 동경대도시권 등은 World Star급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대도시권들은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접근망을 구축하고 복수의 지식집약형 클러스

터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4]. 그러나 세계적인 도시들을 서열화했을 때 서울은 거대도시들 간 교류 규모 및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는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서울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지 못하나 서울 관련 서술에서 지적할 만한 오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관련 서술 중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한 서술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인 서울에 대해 교과서에 상당 부분 정확한 시각과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나아가 서울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대도시의 문제점

높은 인구증가율로 도시가 빠르게 비대화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아진 거대도시들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영국 교과서에는 도시성장과 관련된 문제점에서 서울과 뉴욕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울의 도시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뉴욕의 사례와 비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제시된 점이 특징적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문제로 주택부족, 교통체증 및 공해가 제시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계천 복원을 통한 도시 재생 정책과 신도시 개발을 소개하였다[39].

P. Guinness의 책에서 서울의 도시문제 중 처음으로 기술된 것이 주택부족이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 건축 계획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가는 주택부족으로 이어졌고 주택 형태 또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서울이 성장하면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증가했고 청계천 오염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었으나 청계천 복원으로 인하여 서울의 도심이 재생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서술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역할을 축소하여 인구과밀을 완화하고 국가의 부를 재분배하기 위하여 공주·연기(세종시)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였다고

기술하였다[39]. 영국 교과서에서 서울은 오늘날의 대도시 현황과 도시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상술하였다.



그림 4. G. Bourel, 2007: 195

프랑스 교과서에서도 도시의 문제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교과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서울의 도심과 밀집된 주택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수록하여 인구 과밀로 인한 주택부족 상황을 제시하였다[30] [그림 4].

교과서에서 도시화와 도시의 비대화로 인하여 발생한 대도시의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조된다. 이와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각국의 도시재생 노력 및 환경에 대응하는 모습을 서술하였다.

여러 도시 문제들은 환경 문제와 연관되어 오늘날의 지역과 세계를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로 서술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도시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거점 지역으로 서술된다.

4. 문화자원 및 관광

유럽 교과서에 소개된 서울 또는 한국 관련 서술 중 한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서술은 극히 드물다. 여기서 살펴본 유럽 교과서 중에서 이탈리아 교과서에서만 한국의 문화에 주목한 서술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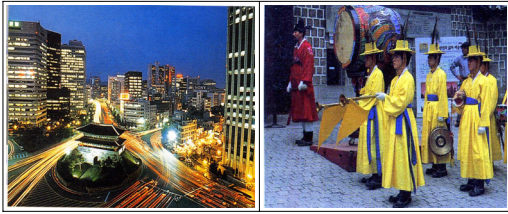


그림 5. S. Bianchi, 2006: 168; 169

S. Bianchi의 책은 이탈리아 지리 교과서로 전세계 국가를 이해하는데 관광을 중심으로 각국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서울은 아시아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로 부각된다.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서울은 1950년대 이후에 재건되어 12차선 도로와 고층건물 등 초현대적인 구조와 함께 철과 강 그리고 탑 등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기억을 간직한 공간으로 서술된다. 한국은 전통적인 환대와 요리가 더해진 폭넓은 관광자원 및 유산을 보유한 곳으로 서울은 옛 것과 초현대적인 것이 혼재된 공간으로 나타난다 [40][그림 5].

이 글에서 살펴본 유럽 교과서 중 유일하게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을 초점으로 특정 지역의 모습이 서술되는 특성상,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서술이 필요하다.

V. 결론

유럽 교과서에 기술된 서울은 인구 과밀의 거대도시, 도시문제, 경제중심지 및 교류 등과 같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통계 수치만 제시되거나 또는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고 있어 오늘날 서울의 모습을 균형있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이는 교과서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도와 사진 등과 같은 시각자료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편, 이탈리아 교과서에서만 유일하게 서울의 역사 및 문화 등과 같은 한국의 문화유산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한 데 앞으로 이 같은 서술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과서의 특성상, 교과서에 서울의 다각적인 모습을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한국 교과서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교과서는 변화를 투영하는 하나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서울은 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소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유럽 교과서에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이룩한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한 유서 깊은 도시로 서울이 소개되어 교과서 그 자체만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K-pop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주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토양으로 작용할 수 있다[7].

이 글에서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관련 서술을 살펴보았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유럽 국가들의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서울의 이미지 및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밝히고, 유럽 교과서에 서울 이외의 도시들은 어떻게 서술되며 서울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외국 교과서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주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1] 강선주, 최상훈,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9학년 이상에서 사용되는 6권의 미국 세계사 교과서 분석”, 역사교육연구, 제1호, pp.1-39, 2005.
- [2] 구난희, “외국의 역사교과서 서술 사례 분석 I: 교과체계와 내용조직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15호, pp.51-99, 2012.
- [3] 기계형, “러시아 대학의 역사학 교재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 역사교육, 제117집, pp.65-111, 2011.
- [4] 김성도, “거대도시화와 디지털 미디어”, 사회와 이론, 제20집, pp.67-95, 2012
- [5] 김영훈, “2000년대 관광 홍보 동영상 속의 한국: 그 특성 및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제44권, 제2호,

- pp.37-70, 2011.
- [6] 김정섭, 이규환, “서울의 도시경관 이미지 분석 및 시각화 방법: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148-158, 2012.
- [7] 김주연, 안경모, “아시아국가에서의 K-pop 이용 행동과 K-pop으로 인한 국가호감도 및 한국 방문의도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516-524, 2012.
- [8] 박소영, “한일강제병합 추진에 관한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 山川出版社와 實教出版발행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13호, pp.81-113, 2011.
- [9] 손용택, “외국 지리교과서 교수-학습 내용의 조직: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태국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1권, 제3호, pp.91-108, 2002.
- [10] 손용택,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교과서 연구: 성찰과 전망”, 사회과교육, 제48권, 제3호, pp.19-34, 2009.
- [11] 안지영, “일본침략 및 강점기에 대한 주변국들의 역사인식: 한국, 중국, 대만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13호, pp.45-80, 2011.
- [12] 안지영, 박소영, 정재윤,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정신문화연구, 제35호, 제1호, pp.343-372, 2012.
- [13] 오만석, 신효숙, “뻬레스뜨로이카 이후 러시아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pp.43-69, 2006.
- [14] 정재윤, 연구보고서KU-CR-07-10 유럽지역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15] 정재윤, 연구보고서KU-CR-08-02 유럽, 아프리카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16] 정재윤, 연구보고서KU-CR-09-03 러시아, 프랑스, 영국, 아제르바이잔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17] 정재윤, 연구보고서KU-CR-10-01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18] 정재윤, 연구보고서KU-CR-11-01 이탈리아, 아일랜드, 케냐 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19] 정재윤, “한국에 대한 영국의 시선: 영국 역사교과서 내 한국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13호, pp.7-43, 2011.
- [20] 정재윤, “한국과 터키의 상호인식-한국과 터키 사회과 교과서 내 양국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제14권, 제1호, pp.81-108, 2012.
- [21] 제임스 M. 블라우트 지음·김동택 옮김, 식민주의자의 세계모델-지리적확산론과 유럽 중심적 역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317, 2008(J. M. Blaut, *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Geographical Diffusionism and Eurocentric History*, 1993).
- [22]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통계청, p.38, 2012.
- [23] 한운석, “독일의 지리 및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역사교육, 제100집, pp.161-194, 2006.
- [24] 허재완, “글로벌 경쟁시대, 서울대도시권의 역할과 과제”, 서울도시연구, 제10권, 제4호, pp.3-14, 2009.
- [25] A. Ardemagni, *Planet 2000*, Principato, pp.150-151, 2005.
- [26] A. Ciattoni, *Géographie*, Hatier, p.33, p.219, p.224, 2004.
- [27] A. Palmer, *Edexcel (A) Advanced Geography*, Phillip Allan, p.473, 2005.
- [28] C. Bouvet and J. M. Lambin, *Histoire-Géographie*, Hachette, p.175, p.189, 2003.
- [29] D. Waugh, *The New Wider World*, Nelson Thornes, p.79, 2003.
- [30] G. Bourel and M. Chevallier, *Histoire-Géographie*,

Hatier, p.195, 2007.

[31] G. Nagle and K. Spencer, *AS&A Level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p.119, 2003.

[32] J. Ahn, "Narratives of the Korean War in Chines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2, No.1, pp.23-39, 2009.

[33] J. A. G. Ruiz and I. G. M. Askue, *Ciencias sociales, geografía e historia ESO 3*, Edelvives, p.103, 2007.

[34] J. Anyon, "Ideology and United States History Textbooks,"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49, No.3, p.361, 1979.

[35] J. Jeong, "The Korean War in European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2, No.1, pp.59-73, 2009.

[36] J. S. Sánchez and A. Z. Martín, *Ciencias Sociales: Geografía 3*, SM, p.121, 2005.

[37] Klett-Perthes, *Haack Weltatlas-Atlas mit CD-Rom*, Klett-Perthes, p.141, p.235, 2007.

[38] M. Dinucci and C. Pellegrini, *Geografia del ventesimo secolo*, Zanichelli, pp.56-58, 2010.

[39] P. Guinness and G. Nagle, *IGCSE Geography*, Hodder Education, p.44, p.48, 2009.

[40] S. Bianchi, R. Köhler and S. Moroni, *Passaporto per il mondo-Geografia del turismo*, DeAgostini, pp.168-169, 2006.

[41] S. Park, "Perspectives on the Korean War in Japanese High School Textbooks: Research Trends of Japanese Academia and their Reflection in the Textbook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2, No.1, pp.41-57, 2009.

[42] W. Chang, "Conflicting Images and Lost Perspective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2, No.1, pp.9-22, 2009.

[43] W. Lee, "History Textbooks of Transitional States in Central Asia,"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2, No.1, pp.75-107, 2009.

[44] http://policy.smc.seoul.kr/policy/data/data_01_view.jsp?srchSel=&srchVal=&cp=1&brd_no=11303

저 자 소 개

정 재 윤(Jae-Yun Jeong)

정희원



- 2004년 2월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화인류학과(인류학 석사)
- 2007년 7월 ~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관심분야> : 외국 교과서를 통한 한국 인식